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종양

논문제목 연부조직 육종과 감별하기 어려웠던 비종양성 연부조직 종괴의 감별진단 지침

영문제목 **Guidelines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tumor-like soft tissue lump mimicking soft tissue sarcoma on imaging study**

발표자 김준영 책임저자 박일형

저자 박일형, 정원주, 김준영

기관명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 종괴의 모습을 보이는 비종양성(non-tumorous) 연부조직 덩어리(lump)는 종양과 감별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침습적 진단 검사소견이 연부조직 육종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비종양성 연부조직 덩어리의 경우 조직생검(tissue biopsy)이 유일한 최종 진단방법이지만, 침습적인 조직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별진단을 위한 체계화 된 알고리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육종의 양상을 나타내는 비종양성 연부조직 종괴를 감별하는 진단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종괴의 모습을 보이는 비종양성(non-tumorous) 연부조직 덩어리(lump)는 종양과 감별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침습적 진단 검사소견이 연부조직 육종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비종양성 연부조직 덩어리의 경우 조직생검(tissue biopsy)이 유일한 최종 진단방법이지만, 침습적인 조직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별진단을 위한 체계화 된 알고리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육종의 양상을 나타내는 비종양성 연부조직 종괴를 감별하는 진단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결과 : 혈종(hematoma)이 15례로 가장 많았으며 외상력이 확실한 경우가 10례, 외상력이 없었던 5례 중 2례는 활막육종으로 확진되었다. 조영증강 MRI와 혈관 Doppler검사가 가장 유용하였다. 12례에서 1~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재검사를 통해 증상 완화와 혈종의 흡수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발성 1례, 종괴의 증가 2례에서 절개생검을 시행하였고, 2예가 활막육종으로 진단되었다. 탄력섬유종(elastofibroma)은 명칭은 종양이나 실제로는 건갑골 하단과 흉곽외벽의 마찰로 발생하는 일종의 근섬유비후현상으로 9명 12례이었으며, 편측에 발생시 조영증강 CT와 조영증강 MRI 검사가 필수적이었으며, 2차적인 대칭위치 발생시에는 진찰만으로도 감별이 가능하였다. 악성종양의 병력 없는 급속한 임파절 비후가 7명 8예 이었고, 조영증강MRI와 초음파검사로 확인 후, 전례에서 침생검이나 절개생검을 시행하였고, 2례는 전이성 임파절 비대였으나 6예는 원인불명성 단순비후이었으며 이중 3명 4례에서 Kimura씨 질환으로 판명되었다. 친구성 근육파열 2례는 조영증강 MRI만으로는 육종과의 감별이 용이하지 않았고, 뚜렷한 외상력 1례는 반복적인 추시만으로 확인되었고, 외상력이 없었던 1례는 침생검(needle biopsy)후 경과관찰로 확인하였다. 급속한 증대를 나타낸 골연골종에 의한 동맥류(aneurysm) 2례는 조영증강MRI, CT혈관조영영상에서도 육종과의 감별이 불가능하여 모두 절개생검으로 확진되었다. 그 외 섬유지방과오종(fibrolipomatous hamartoma), 망상형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 골격외 가섬유종(extraosseous pseudofibroma)이 각각 1례였다.

결론 : 혈종은 외상력 확인이 중요하다. 외상력이 없거나, 재발성 혈종은 활막육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침생검보다는 침생검 보다 절개생검이 필요하다. 탄력섬유종은 발생부위가 특징적이고 중요하며 대칭적으로 발생하면 진단이 용이하다. 악성종양의 병력 없는 급속한 임파절 비후는 반드시 침 또는 절개생검이 필요하며, 상지에 발생하면

Kimura씨 질환가능성이 있고, 대칭적 발생시에는 역시 진단이 용이하다. 진구성 근육파열은 조영증강 MRI가 필요하며 외상력이 불분명하면 반복적 재검사나 침생검이 필요하다. 골연골종이 있는 부위에서 급속한 연부조직 종창이 발생하면 동맥류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영상소견에서 육종과 감별이 용이하지 않은 연부조직 종괴는 반드시 조직생검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 :

fat necrosis,epidermal cyst, elastofibroma,fibrolipomatous hamartoma,plexiform neurofibroma,extraosseous pseudofibroma
